

1951년 유엔묘지 전몰장병 헌정식

- 1950~1951년 임시 유엔묘지의 통합에서 헌정식에 이르는 과정 고찰 -

이 정 선*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1950~1951년 임시 유엔묘지의 조성 과정
- III. 1951년 4월 당곡리 유엔묘지 전몰장병 헌정식
- IV. 나가며

| 국문초록 |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과 더불어 2021년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유엔군 전사자들의 공식 묘지인 재한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러한 기념비적 사건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유엔기념공원의 위상을 고찰하는 작업은 이 장소의 역사적 함의를 시의 적절하게 되짚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인 1950년 7월 이후 한반도에 산재하던 임시 유엔묘지의 조성과정과 통합을 거쳐 현재 유엔기념공원의 전신인 유엔묘지가 1951년 4월에 준공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간 학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zenith701_@naver.com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51년 4월 6일 유엔묘지 헌정식의 양상을 최초로 자세히 짚어보았다. 임시 유엔 묘지의 조성 과정과 본 헌정식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각도의 멀티 아카이브(multi-archival) 조사를 통해 발굴한 헌정식 관련 문서와 영상사료를 처음으로 교차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유엔기념공원은 2030년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주요 구성자산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논문에서 제시하는 1951년 헌정식 사료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1950년대 유엔묘지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학술 담론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가 유엔묘지 건립 7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한국전쟁이라는 국제 규모의 군사(軍史)와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부산 역사가 중첩되는 교차로를 재점검하고 향후 한반도와 참전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탐색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유엔기념공원, 피란수도 부산유산, 매슈 리지웨이 장군

I. 들어가며

2020년 부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2021년은 본 전쟁의 산물인 재한 유엔기념공원 조성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교차로에서 유엔기념공원의 위상을 고찰하는 작업은 부산과 대한민국, 국제연합(이하 ‘유엔’)의 공식 묘지의 역사적 함의를 시의 적절하게 되짚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유엔기념공원이 지니는 의미는 유엔이 공인한 전 세계 유일무이의 묘지라는 수식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51년 1월 유엔군사령부가 건립한 이 곳은 22개 공식 유엔참전국 가운데 11개국의 전사자 2,311명이 안장된 묘지¹⁾이자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그리고 부산 유엔평화문화특구의

핵심 장소이다. 또한 2008년 이후 해마다 11월 11일에 개최되는 국제추모식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의 기점인 동시에 전 세계 추모 참여자들의 기념행위가 집중되는 종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후 7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유엔군 참전용사의 안장이 진행 중인 사실 또한 유엔기념공원에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엔기념공원에 관한 학술적 연구 기반은 결코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에 발간된 단행본은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 문헌의 수록 논문은 공원의 역사와 공간적 구조, 한국전쟁기 유엔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유용한 토대를 제공하였다.²⁾ 2019년 이후 발표된 대다수의 논저는 이 단행본의 기반 위에 연구 저변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유산 및 근대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본 공원의 위상을 고찰한 학위논문³⁾도 발표되고 있다.

한편 1951년 유엔묘지 건립 직후 약 9년간 유엔군사령부가 본 묘지를 관리하던 시기와 이어서 1960년부터 약 14년에 걸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이하 ‘언커크’)의 관리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1951년의 조성 상황을 전적으로 다룬 국내 문헌은 드물며, 부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미 군사 문헌⁴⁾에 의존하고 있다.

-
- 1) 『중앙일보』, 2021.6.25. 18면. ‘6·25 참전 21개국 전사자중 11개국 2311명 유해 영면.’
 - 2) 김선미, 『제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66~106쪽 등 수록 논문을 참조.
 - 3) 정기욱, 『6.25전쟁 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재 가능성 분석-남한지역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전재일, 『헤이든 화이트의 서사적 관점으로 본 부산근대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고찰-부산항 제 1부두와 제한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4) Cook, John C.,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 The Quartermaster Review, VA: Army Quartermaster Museum. 1953, <https://qmmuseum.lee.army.mil/>

이 같은 연구 상황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인 1951년 유엔 기념공원의 전신인 유엔묘지가 당곡리(현재 남구 대연동)에 조성되는 전후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4월 6일 유엔묘지에서 개최된 헌정식의 양상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50년 7월 이후 한반도 각지에 조성된 임시 유엔묘지의 통합을 거쳐 1951년 4월에 이르는 유엔 묘지의 준공 과정과 헌정식을 살펴본다. 무엇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학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유엔묘지 헌정식⁵⁾을 고찰하는 데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임시 유엔묘지의 조성 경위는 헌정식에 이르는 흐름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제시함을 밝혀둔다.

분석 과정에서는 다각도의 멀티 아카이브(multi-archival) 조사를 통해 발굴한 헌정식 문서와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고 검토함으로써 주로 사진과 신문기사에 기반을 둔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과 미 군사 문헌, 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도서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 유엔군 참전용사의 기록, 헌정식 영상자료 등 다방면의 문헌과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추적하였다⁶⁾. 특히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견된

korea/gr_korea. htm(검색일: 2021. 7. 21.) 본 자료는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소장원본청구기호: 390/8/05/06-07/E.2116K/Box3, “8.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Quartermaster review, March-April, 1953):잡지/John C. Cook, QMC, 1953 = 95”, pp. 95~102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본고에서는 Army Quartermaster Museum 링크를 직접적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 5) 1951년 4월 6일 유엔묘지 헌정식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강인철, 『전쟁과 희생: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398쪽을 참조.
- 6) NARA 및 LAC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해외기록물 전자자료로 보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자자료를 활용했는데, NARA 문서의 경우 양쪽

1951년 4월 헌정식 영상사료 2건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없는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1950년대 유엔묘지 관련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유엔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가 중장기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유산’ 사업의 구성자산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공개 및 분석하는 유엔묘지 헌정식 사료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처럼 유엔기념공원 건립 7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 묘지 조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⁷⁾은 국제 군사사와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부산학의 지형 위에서 실천하는 유의미한 학술적 담론의 구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1950~1951년 임시 유엔묘지의 조성 과정

한국전쟁은 미 군사상 최초로 전투 중 전사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작동시킨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다⁸⁾.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이 당국리에 유엔묘지를 완공한 것은 1951년 4월이지만 그 기원은 미국 제24 보병사단(Infantry Division)이 1950년 7월 초 대전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임시 유엔묘지로 거슬러 올라간다.⁹⁾ 당시 대전 묘역에는 약 46구의

기관에 다수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필자가 참고한 출처를 기술하였다.

- 7) 이는 다음 선행연구가 남긴 과제를 보완하려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 『軍史』 119, 2021, 26쪽.
- 8)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미군 전사자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 『항도부산』 40, 2020, 303쪽.
- 9) Cook, Op. cit., 1953. Lee, Sangho, “The Domestic Management and Media Coverage

유해를 가매장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Cook, 1953).

그러나 그 직후 북한군이 대전을 점령하면서 유엔군은 대전 임시묘지를 포기해야 했다.¹⁰⁾ 치열한 전투 중에 전투원들이 정성을 다해 묘역을 관리하기란 어려웠기에 무덤을 파고 기록을 작성하기까지 시신은 텐트와 같은 임시 안치소에 보관되었다.¹¹⁾ 중요한 점은 급변하는 전황에 따라 유엔군이 후퇴하는 가운데에도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존엄성과 엄숙함 속에 안장했다는 사실이다.¹²⁾

1950년 7월 이후에는 한반도 각지에 임시 유엔묘지가 설립되었다(Cook, 1953; Keene, 2010; 김선미, 2013; 우신구, 2013; 전재일, 2020; Lee, 2020(b)). 제2보병사단과 제24보병사단은 밀양에, 제25보병사단은 마산에, 제1기병사단(Cavalry Division)은 대구에, 그리고 제2군수사령부(2nd Logistical Command)은 부산에 묘지를 조성했다.¹³⁾

1950년 8월의 대구 임시 유엔묘지 전경(<그림 1>)은 근로자들이 묘소에 설치한 간이 직사각형 표식을 십자가로 교체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전시 중 임시묘지라 해도 유엔군이 아군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데 주력했음을 말해준다. 대구 묘지에 안장된 유해가 그로부터 반 년 뒤 부산의 유엔묘지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본 사진은 유엔묘지가 조성되어 재매장되기 전까지 유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에 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

of Falle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1950 - 1953”, *Korea Journal* 60 (2), 2020, p. 56. Lee, Chungsun, “Other Spaces: Exploring Kyushu as ‘Heterotopia for Humanity’ in Japan’s Korean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10 (4), 2020(b), p.121.

10) Cook, Ibid.

11) Cook, Ibid. Westover, John G., *Combat Support in Korea* (U.S. Army in Action Series),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182.

12) Cook, Ibid.

13) Cook, Ibid.



<그림 1> 대구 임시 유엔묘지 전경 (1950년 8월 25일)¹⁴⁾

이처럼 유엔군이 전시 중 임시 유엔묘지를 조성하는 전경은 미 페리스코프필름(PeriscopeFilm) 영상에서도 발견된다.¹⁵⁾ 약 2분에 걸친 본 영상에서 미군과 국내 근로자들이 마산 임시 유엔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부가 묘역을 평평히 다지는 모습(11분 54초)과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11분 57초), 경사진 언덕에 빼곡히 자

14)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950-1952, RG 306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Record Group)(PS ; Series), Box129, Cemeteries - Korea, United Nations /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Taegu, Korea. Two men replacing plain headboards with crosses on graves in the left cavalry division temporary cemetery 1950.08.25 = 1."

15) PeriscopeFilm, "1951 KOREAN WAR HOME MOVIE PUSAN WEST AIR BASE BURIAL DETAIL MARINE CORPS (SILENT) 24114", <https://www.youtube.com/watch?v=U3NAhwmp-0I&t=841s>(검색일: 2021.8.8.). 본 내용은 전체 영상 중 11분 20초~14분 25초 사이의 분량이며, 묘지 특성상 전후 맥락의 내용은 시청에 주의를 당부한다.

리 잡은 묘역을 배경으로 "한국 마산 유엔묘지(UNITED NATIONS CEMETERY MASAN KOREA)"를 나타낸 팻말이 세워져 있는 전경(13분 8~30초)¹⁶⁾, 그리고 유엔기가 조기(弔旗) 게양되어 있는 장면(13분 33초) 등이 선명히 확인된다. 기존에 공개된 임시 유엔묘지 사진에 비하여 본 영상은 묘지의 제반 상황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한편 전황에 따라 각 부대가 별도로 묘역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극동사령부 병참부대는 모든 유엔군 전사자 수습과 안장을 기록하는 정책을 수립했다.¹⁷⁾ 일본에 잔류한 10군단(X Corps)의 소대는 1950년 9월 8일 미 제1해병사단(1st Marine Division)과 함께 인천에 임시 유엔묘지를 개설했다.¹⁸⁾ 극동사령부에 배속된 제565영헌등록중대(565th Graves Registration Company)는 9월 12일 부산에 도착하여 미8군 병참부대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밀양 등에 임시 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전사자 대피와 묘지 운영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⁹⁾ 이후 유엔군은 기존에 설립한 묘지로 전사자들을 후송하여 안장하였다.²⁰⁾

전쟁 중의 전사자 후송은 지난(至難)한 작업의 연속이었다(Lee, 2020(b)). 1950년대 초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병참부대 인력은 이송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Cook, 1953; Anders, 1988; Keene, 2010; 우신

16) 화면상에서 팻말 글씨는 좌우 반대로 나타나 있다

17)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 Series), 390/8/05/06-07/E.2116K/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50, "12. Historical report - Headquarters,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8204th Army Unit APO 3 = 122". Westover, Op. cit., 1990, p. 182.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165쪽.

18) Cook, Op. cit., 1953.

19) Cook, Ibid.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5쪽.

20) Cook, Ibid. 우신구, 위의 논문, 165쪽.

구, 2013). 더욱이 인력 부족과 전투 정세에 따른 이동 상황²¹⁾을 고려할 때 이들은 주로 좁은 길을 이용한 탓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²²⁾ 부대원들은 긴박한 정황상 곧바로 무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드러운 토양 혹은 참호(foxhole)에 시신을 가매장하고 유해 장소를 표시해 두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매장된 유해는 그 후 다량으로 유실되었다(Cook, 1953; 우신구, 2013).

이 같은 전사자 유해 수습 정황은 영국 출신 참전용사로 시신수습팀(Recovery Unit)²³⁾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그룬디(James Grundy)의 증언에도 등장한다. 부산 남구 특별 신문에 실린 그의 기고문에 따르면 시신수습팀은 한반도 각지에서 전사자 수색과 수습 작업을 벌였다.²⁴⁾ 부산에서 대구 사이의 유해 매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가지고 수색한 그는 추운 날은 땅이 얼어붙는 등 기후 영향이 컸다고도 회고했다.²⁵⁾

이와 더불어 실종자(Missing In Action, 이하 ‘MIA’)로 보고된 유엔군도 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수백 구의 유해가 영현등록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Cook, 1953). 이처럼 유엔군은 전사자뿐만 아니라 실종자를 포함한 아군의 유해 수습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신을 안장한 자리에는 가능한 한 표시를 해 두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전우들의 유해를 되찾기 위해 주력했다.²⁶⁾

21) Anders, S. E., “With All Due Honors: A History of the Quartermaster Graves Registration Mission”, <https://www.qmfound.com/article/with-all-due-honors-a-history-of-the-quartermaster-graves-registration-mission>(검색일 : 2021.5.22)

22) Appleman, Roy,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June-November 1950),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p. 199~211, 249~252.

23) 영국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5명 규모의 시신수습팀은 전장에서 전몰자의 유해를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룬디는 이 중 한 명이다. 시신수습팀에 관해서는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4~75쪽, 강인철, 앞의 책, 2019, 398쪽을 참조.

24) 『Never Forget You All』(부산광역시 남구청 특별호), 2018.11.11. 17면, ‘한국에 소년으로 왔다가 사나이가 되어 돌아갔다.’

25) 『Never Forget You All』, 위의 기사.

한편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낙동강전선의 반격으로 전쟁 이전 상태를 회복한 유엔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²⁷⁾ 북한에도 임시묘지를 조성했다.²⁸⁾ 제1기병사단이 10월 22일 평양에 임시묘지를 개설함과 동시에 제187공수연대(187th Airborne Regimental Combat Team)와 제24보병사단도 공동으로 수천에 유엔묘지를 설립했다.²⁹⁾ 이후 중국군의 공격을 피해 홍남으로 이동한 제565영현등록중대는 해변 부근에 유엔묘지를 설립했으나 장진호 전투 이후 유엔군이 긴급 철수하면서 유엔군이 북한에 세운 임시 묘지는 폐쇄되었다(Cook, 1953).

쿡(1953)이 강조한 대로 타국의 치열한 전투에서 희생되어 타향에서 안장된 전사자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의 대상이 되었다. 비록 임시적이기는 하더라도 전시 하에서 유엔묘지는 상징적인 추도 의례를 수반했다. 사료를 통해서도 1950년 10월 초 북진한 유엔군이 장진호 전투 직후 12월 북한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홍남 유엔묘지에서 추모식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³⁰⁾ 이러한 배경은 개략적이거나 당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황 가운데 이동과 더불어 유엔군들이 아군들의 매장과 추모에도 각별히 노력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기에 한반도 각지에 설립된 유엔묘지는 고정적인 장소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전사자의 안식처는 전투 정세에 따라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의 이동과 밀접하게

26) Cook, Op. cit., 1953. Westover, Op. cit., 1990, pp. 180~183.

27)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191~198쪽.

28) 유엔군이 북한에 임시 유엔묘지를 설립한 경위는 조성훈, 「정전협정 직후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 (1), 2020, 208~209쪽을 참조.

29) Cook, Op. cit., 1953.

30) Simmons, Edwin, *Frozen Chosin: U.S. Marines At The Changjin Reservoir* (Marines In The Korean War Commemorative Series Book 7), New York: Normanby Press, 2015, p. 121, 123. 올리버 스미스(Oliver P. Smith) 미 제1해병사단장은 1950년 12월 13일 홍남 임시 유엔묘지에서 개최된 추도식에 참석했다. 기독교, 가톨릭 및 유대교 성직자들이 추도식을 집전한 본 의식에서는 조총이 발사되고 진혼 나팔이 울렸다.

연동되었다. 유엔군이 북진에 의해 38선 이북에 묘지를 설립했다가 후퇴로 인해 남겨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묘지가 설립된 장소는 유엔군의 주둔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목해야 할 점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시신수습팀원과 영현등록병들이 전장에 남겨진 시신을 최대한 정성껏 수습하고 임시 안치와 신원 확인³¹⁾, 이동과 재안장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사자 유해가 그 자체로 장소(topos)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이동 궤적과 그 후속 작업을 추적하는 일은 한국전쟁이 우리 세대에 남기는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Ⅲ. 1951년 4월 당곡리 유엔묘지 전몰장병 헌정식

1. 유엔묘지의 조성

오늘날 유엔기념공원의 전신이 되는 당곡리 유엔묘지의 조성은 유엔 군사령부, 즉 미군이 주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이어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영국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수개월 후 영국 전사자들을 한반도에 안장하는 건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³²⁾ 1950년 11월 말에 주일(駐日) 영국임시대표부(British Liaison Mission in Tokyo)의 가스코인(Gascoigne) 대사가 주일 영연방점령군(British Commonwealth

31) 미군 중심의 전사자 신원 확인 작업은 이정선, 앞의 논문, 2020, 292~303쪽을 참조.

32) LAC, RG25: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Fonds (R219-0-2-E), ACA001_01_01C0037, [U.N. Cemetery in Korea, Part 2, 1955/08/01-1965/03/31 (File 7-3-3-5)], Box 10, "Letter dated 30th November, 1950(From A. Gascoigne to HCH Robertson)", p. 318 (원본 소장: LAC,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7. 19).

Occupation Force, 이하 ‘BCOF’)의 로버트슨(Robertson) 총사령관에게 보낸 문서³³⁾에는 영국이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의 경우에도 영국 전몰장병들을 그들이 사망한 한반도에 남겨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³⁴⁾ 이처럼 타국의 전사자들을 사망한 땅에 안장하는 영연방의 방침은 한국전쟁에서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내버려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는 원칙을 실천에 옮긴 미군과는 대조를 이룬다³⁵⁾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51년 1월부터 시작된 당곡리 유엔묘지 설립과 영연방 장병들의 본 유엔묘지 안장 배경의 연관성은 향후 세밀히 규명해야 하지만, 주일 영국임시대표부와 영연방점령군 총사령관 간의 문서는 당시 영국 전몰장병들이 한반도에 안장되는 배경의 일단을 가늠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처럼 유엔군을 주도한 미국 이외에도 영연방, 기타 참전국의 입장이 상이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타 참전국의 보다 상세한 안장 경위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1951년 1월 18일 유엔군은 장기화되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유엔군 묘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³⁶⁾ 그 대상지는 당시 피란수도 부산 외곽에 소재한 당곡리로 현재 남구 대연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초기 규모는 약 72에이커(acre)³⁷⁾이었으며 환산하면 291,374m²의 면적에 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부지가 유엔묘지로 선정된 이유로 당시 당곡리가 부산항과 일본 항만 간 해로(海路) 운영의 용이성과 갯벌과 임야지역이라는 대규모 면적의 확보가 가능했던 점, 그리고 주

33) LAC, Ibid, p. 318.

34) LAC, Ibid, p. 318.

35) Congram, Derek, “Grave Influence: The Impact of Britain and the U.S. on Canada’s War Dead Policy”, *Journal of War & Culture Studies* 10 (4), 2017, p. 306.

36) 국가보훈처(차성환), 『참전기념 조형물 도감』 국가보훈처, 1996, 63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3쪽.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6쪽.

37) Anders, Op. cit., 1988.

민들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던 입지면의 이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요인이 대형 묘지 조성에 적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³⁸⁾

그 후 4월 초 준공을 목표로 당곡리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다(Cook, 1953; Keene, 2010; 우신구, 2013; Lee, 2020(a); 2020(b)). 이 기간 중 수 백 명의 근로자들이 부산 및 인접 지역에서 채용되었다(Cook, 1953; Keene, 2010). 인력들은 계단식 부지의 축대를 쌓을 바위를 멀리 떨어진 채석장으로부터 소형 선박으로 운반하여 해변에 하역하였다.³⁹⁾ 당곡리 유엔묘지 조성 중에는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6곳의 임시묘지에서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어 이송되었다.⁴⁰⁾ 이렇게 약 3개월에 걸쳐 유엔묘지가 건설되는 동안 일본 규슈(九州) 고쿠라에서는 전사자 신원 확인과 미군 유해의 본국 송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⁴¹⁾

유엔군의 실체를 이루는 미군은 유엔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참전국의 집합적인 묘소를 상징구역으로 형상화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료로 유엔참전국 중 15개국으로 구성된 배치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그림 2>는 미군이 1951년 4월 6일 개최한 유엔군 전몰장병 헌정식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내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영인한 NARA 문서군(Record Group, 이하 ‘RG’) 92의 문헌 조사를 통해 발굴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사료라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1951년 4월 헌정식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 그림은 70년 가까이 보관된 NARA 문서군 가운데 유엔기념공원 상징구역의 기원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또한 1951년 초창기 유엔묘지의 전경을 나타내는 점에서 ‘피란수도 부산’ 시절 유엔묘지의 증거물로도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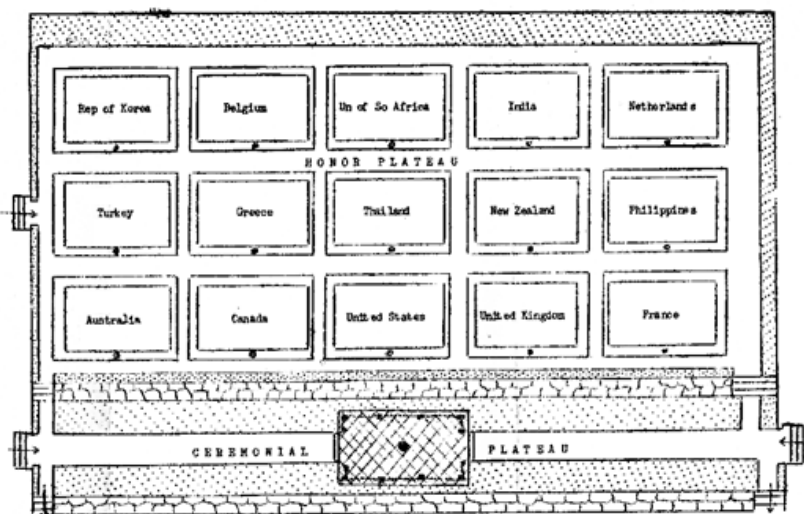
38)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3~74쪽.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6~167쪽.

39) 우신구, 위의 논문, 167쪽.

40) Cook, Op. cit., 1953. 전제일, 앞의 석사학위논문, 2020, 79쪽.

41) 이정선, 앞의 논문, 2020, 296~302쪽을 참고.

또한 <그림 2>는 유엔기가 게양되어 있는 의식 연단(Ceremonial Plateau)를 맨 앞으로 하는 명예 연단(Honor Plateau)의 첫 번째 줄에, 왼쪽부터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두 번째 줄은 터키, 그리스,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이,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대한민국, 벨기에, 남아프리카연방⁴²⁾, 인도, 네덜란드의 구역을 나타낸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에서 20개국으로 이루어진 상징구역은 바로 이 1951년의 유엔참전국 15개국의 배치도 상단에 5개국이 추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참전국을 상징하는 직사각형의 공간에는 해당 국기 및 일부 전사자의 묘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하여 공원을 찾은 참전국의 방문객은 상징구역의 해당국 묘역에서 자국 군인의 한국전 참전과 유엔군이라는 집단의 귀속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림 2> 유엔묘지 상징구역의 유엔참전국 배치도(1951년 4월)⁴³⁾

4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1961년 이전 명칭이 ‘남아프리카연방 (Union of South Africa)’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1950년대 당시 국호로 표기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주일 캐나다임시대표외교부(Canadian Liaison Mission in Japan)의 멘지스(Menzies) 대표가 1951년 유엔묘지 헌정식에 참가한 후 캐나다 외무부에 발송한 서한이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헌정식 참관기 성격의 본 서한에서 멘지스 대표가 상징구역에 15개의 균등한 묘역이 유엔참전 15개국을 군대식으로 정교하게(in military precision) 표시하고 있다⁴⁴⁾고 기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위 서한과 더불어 헌정식 이후의 사료도 병행 분석함으로써 본 배치도의 국가별 배열에서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일례로 1951년 6월에 공중에서 촬영된 <그림 3>의 묘지 전경을 살펴보면 1951년 당시 묘지의 옛 정문이 북쪽(<그림 3>상의 오른쪽)인 점이 드러난다.⁴⁵⁾ 이를 근거로 1951년 당시 옛 정문을 통해 입장한 방문객의 시선(남향)으로

43)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 Series), 소장원본청구기호: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127.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Records, 1951.04.06 = 234", p. 234. 그림의 자체 제목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에 국립중앙도서관 문서정보에 기재된 관련 항목을 모두 기재하였음을 언급해둔다.

44) LAC, RG25: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Fonds (R219- 0-2-E), ACA001_01_01C0037, [U.N. Cemetery in Korea, Part 2, 1955/08/01-1965/03/31 (File 7-3-3-5)], Box 10, "Dedication of United Nations Cemetery in Korea", (From: The Head of the Canadian Liaison Mission, Tokyo,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CANADA, Date: April 7, 1951, Despatch: No. 334), p. 323(원 문서 p.2) (원본 소장: LAC,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7. 19) 본 문서는 준공 직후의 유엔묘지의 전경과 주변 환경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헌정식의 양상을 관찰한 참전국 주요 인사의 생생한 참관기라는 점에서 이 역시 피란수도 기 부산유산인 유엔묘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리라 판단된다.

45) NARA, RG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 1985, Cpl. Gene La Grone (1951.06.17, SC 370707), "Aerial view of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공중에서 본 유엔묘지]," 사료건 (AUS005_06_04V0000_231), (원본 소장: NARA,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5. 3.).

<그림 2>를 재검토하면 본 그림에서 옛 정문은 왼쪽 상단에 위치했으므로 3번째 줄 좌측의 대한민국 묘역이 가장 먼저 방문객의 시야에 들어 오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묘역 배치는 유엔묘지의 장소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함에 따라, 15개국의 배열 원리와 조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과제라 하겠다.



<그림 3> 공중에서 본 유엔묘지(1951년 6월 17일)⁴⁶⁾

무엇보다 1951년 당시 유엔묘지는 다국적 유엔군 전사자 유해를 집결시켜 유엔군이라는 집단 전체를 표상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의 실체를 이룬 미군은 유엔묘지 건립과 조성을 주도하였기에 상징구역의 묘역(<그림 2>상의 첫 번째 줄 중앙)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

46) NARA, Ibid. <그림 3>은 전재일, 앞의 석사학위논문, 2020, 80쪽에도 "<그림 3-40> 1951년 6월 17일 UN묘지 전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사진에서 상징구역이 20개국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한정식이 개최된 1951년 4월 초 이후 6월 중순 사이에 상징구역의 4번째 줄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편 참전국별 안장과 송환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영연방 5개국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참전국의 전사자들은 당곡리 유엔묘지에 안장되었다.⁴⁷⁾ 따라서 <그림 2>의 상징구역 배치도는 이러한 배경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1951년 4월 초 당곡리 유엔묘지가 준공되어 6일에 유엔군 전몰장병 헌정식이 개최되었다.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헌정식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유엔군 전몰장병 헌정식 (1951년 4월 6일)

1951년 4월 6일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유엔묘지에서 유엔군 전몰장병 헌정식이 거행되었다(<그림 4>, <그림 5>).⁴⁸⁾ 헌정식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사진 혹은 신문기사가 사료의 주를 이루는 가운데⁴⁹⁾ 이와는 별도로 본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2건의 영상자료에 주목을 환기시키고자 한다.⁵⁰⁾ 로이터 및

47)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82.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 비망록/MacArthur, Command of General 발산;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수신, 1951.01.08 = 126.”

48) 『동아일보』, 1951.4.8. 2면. ‘世界平和의 守護神 英靈에 길이 冥福 잇스라’. 강인철, 앞의 책, 2019, 398쪽.

49) 전재일, 앞의 석사학위논문, 2020, 81쪽. Lee, Sangho, 2020, Op. cit., p. 65. 강인철, 위의 책, 398쪽.

50) MyFootage.com, “1951 U.N. Korean War Memorial Ceremony in Pusan (Silent (Outtakes))”, https://www.youtube.com/watch?v=6_mleKAgTs8. Reuters Limited & British Pathé, “General Ridgway Attends Dedication Of Un Cemetery. 1951” (GROUP: Reuters - Including Visnews, FILM ID:VLVA6WRNKUNMFY8CQ427C19PCBRKG), <https://www.britishpathe.com/video/VLVA6WRNKUNMFY8CQ427C19PCBRKG-GENERAL-RIDGWAY-ATTENDS-DEDICATION-OF-UN->

브리티쉬 파테(British Pathé)에 소장된 27초 분량의 영상과 마이푸티지(My Footage)에 보관된 6분 22초의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 두 영상 모두 음성은 제공되지 않으나, 특히 마이푸티지 영상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으므로 건립 직후의 유엔묘지와 행사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 기 수집되어 있는 NARA 사진을 토대로 영상사료를 추가하여 교차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헌정식의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그림 4>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서 나누기는 각 UN
참전국들의 깃발 (상징구역)⁵¹⁾

CEMETERY/query/cemetery (검색일: 2021. 4. 4). 2건의 영상 내용은 동일하며, 필자는 영상사료를 발견한 후 유엔기념공원 관리처 측에 전달한 바 있다.

51)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Photographic Center (09/18/1947- ?) 1951.04~1951.04, Folder H,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사료건 AUS060_01_00V0004_ 515,



<그림 5>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 입장하는 한미 및 호주 수뇌부들⁵²⁾

“Flags of Many Nation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서 나부끼는 각 UN 회원국들의 깃발]”, 문서번호 467868),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7.22), 사진의 원 제목은 “FLAGS OF MANY NATION FLY BEHIND THE UNITED NATION’S FLAG, AT DEDICATION CEREMONIES OF THE UNITED NATION’S CEMETARY(sic) AT PUSAN, KOREA”로 기재되어 있다. 한글 제목은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서 나부끼는 각 UN 회원국들의 깃발”로 번역되어 있으나, 1951년 당시 대한민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맥락상 “UN 참전국”으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 52)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Photographic Center (09/18/1947 - ?) 1951.04~1951.04, Folder H, 소장처: NARA,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60_01_00V0004_517, “Entering the UN Cemetery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 참석한 한미 수뇌부들]”, 문서번호 467870),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7. 22), 사진의 원제는 “PRESIDENT SYNGMAN RHEE, OF THE REPUBLIC OF KOREA PROCEEDS GEN. MATTHEW B. RIDGWAY, SUPREME UNITED NATION COMMANDER, AND MR JOHN J. MUCCIO, U. S. AMBASSADOR TO KOREA, AS THEY ENTER THE UNITED NATIONS CEMETARY(sic) AT PUSAN KOREA FOR FORMAL DEDICATION CEREMONIES”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5>의 한글 제목

우선 <그림 4> 속의 기수(旗手)들이 참전국별 국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앞서 제시한 <그림 2>의 상징구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와 비교하여 <그림 4>을 살펴보면 기수들의 위치는 앞줄 유엔기와 첫째 줄의 미국 및 영국 묘역 사이의 의식 연단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어서 <그림 5>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리지웨이(Ridgway) 중장⁵³⁾, 무초(Muccio) 주한 미국 대사, 언커크의 호주 외교관인 플림졸(Plimsoll), 그 뒤로 호지슨(Hodgson) 대일이사회(Allied Council for Japan) 호주 출신 대사⁵⁴⁾가 순서대로 유엔묘지에 입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마이푸티지 영상사료(처음 11초 분량)에서도 확인되는데, 영상 속에서 이들 귀빈은 참전국 국기가 진열되어 있는 상징구역 앞으로 등장하고 있다.⁵⁵⁾

다음으로 참석자 배치도(<그림 6>)와 NARA 사료의 귀빈 세부명단(<그림 7>)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언커크를 구성한 7개국, 즉, 호주, 태국,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각 대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참석자로는 장면 총리(2번째 줄 우측 첫 번째)와 신익희 국회의장(2번째 줄 우측 두 번째),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2번째 줄 중앙), 신성모 제2대 국방부 장관(3번째 줄 우측 첫 번째)의 위치도 발견된다.⁵⁶⁾

은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 참석한 한미 수뇌부”로 표기되어 있으나 플림졸과 호지슨은 모두 호주 출신이므로 이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 입장하는 한미 및 호주 수뇌부들”로 기술하였다.

53) 리지웨이가 맥아더 유엔군최고사령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날짜가 1951년 4월 1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임 5일 전에 본 헌정식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NARA 사료에 표기된 Lt. General를 참고하여 헌정식 당시 그의 보직을 중장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54) 호지슨의 이력은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2006~2021, “Hodgson, William Roy (1892 - 1958)”, <https://adb.anu.edu.au/biography/hodgson-william-roy-6695> (검색일: 2021. 7. 17)을 참조

55) MyFootage.com, “1951 U.N. Korean War Memorial Ceremony in Pusan (Silent) (Outtakes)”, 앞의 영상, 처음 11초 분량의 영상화면을 참조

Ambassador	Minister	General	Ambassador	President
Hodgson	Flinsoll	Ridgway	Muccio	Shee

Ambassador	Ambassador	Ambassador	Ambassador	Ambassador	Col	Lt Gen	Vice Adm	Lt Gen	Ambassador	Senator	Excellency	Excellency
Teppema	Shao Yu Lin	DeJesse	Ziaud-din	Glehen	Lawhon	Chung	Kiland	Coulter	Trucoe	Sarasin	Shinicky	Chang, Hyun

Dr.	Brig Gen	C d' A	C d' A	C d' A	Honorable	Honorable	Maj Gen	Minister	Minister	Minister	Minister
Idill	Yount	Mumies	Adams	Brownal	Stawrop-cakes	Burno	Barcardis	Hikha-haeng	Chebur	de la Chevalerie	Shin

Col Collier	Maj Dale	Lt Col Lewis	Lt Col Lichens	Col Doyle	Col Tolagon	Col R.G.McKee	Col Conley
DC/S	ADC	AG	Hq Comdt	Civ Asst	Swedish Hospital	GRQ	C-1 EMBL

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림 6>과 <그림 7>의 귀빈 세부명단을 대조함으로써 확인되는 사항으로는 일본에 주재한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이하 ‘SCAP’) 소속의 유엔참전국 대표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중 당시 의료지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인도 최초의 주일대사가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끈다. 명단 상에서 SCAP 소속의 각국 대표는 호주의 호지슨, 프랑스의 드진(Dejean), 네덜란드의 테페마(Teppema), 벨기에의 세발레리(Chevalerie), 인도 철타(Chettur), 태국의 닐캄행(Nilkamhaeng), 캐나다의 멘지스이며 이들은 일본 주재(駐在)중 본 헌정식에 참석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캐나다 멘지스 대표의 헌정식 참관기 서한에서 “리지웨이 중장이 주일 공관장들에게 한국에 병력을 파병한 참전국 대표들이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 헌정식에 참석하도록 사전에 요청했다⁵⁸⁾”고 명시한 것과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SCAP의 주일 참전국 대표들이 헌정식에 대거 참석한 데에는 리지웨이 중장의 사전 독려가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모두 <그림 2>의 상징구역상의 15개 유엔참전국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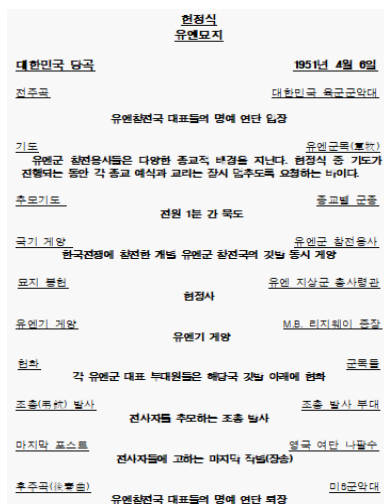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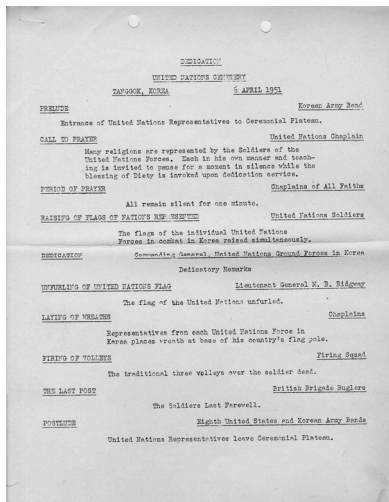
이처럼 헌정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 신익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내 국방계 주요 인사와 언커크의 각국 대표, SCAP 소속의 유엔참전국 대사 등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쟁기 한반도에서 1951년 4월 6일에 개최된 유엔묘지 헌정식이 유엔참전국 전체의 역사에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을 짐작케 한다.

58) LAC, Op. cit., 1951, p. 323(원 문서 p. 2). 본 서한에서 멘지스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전용항공기 바탄(Bataan)을 타고 약 3시간 만에 걸쳐 부산으로 비행하였다는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

<u>VIP GUEST LIST</u>	
<u>DEDICATION</u>	
<u>UNITED NATIONS CEMETERY</u>	
<u>6 APRIL 1951</u>	
His Excellency Syngman Rhee Lieut General M. B. Ridgway Ambassador John J. Muccio Minister James Flinn Ambassador W. R. Hodgso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C. G. UNGER and BUSAK US Ambassador to Korea Chairman UNCORK (Australia) Senior Foreign Diplomatic Representative with SCAP (Australia)
His Excellency Chang Myun His Excellency Shintsky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Chairman,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Senator Pote Sarasin Ambassador M. Trucco Ambassador A. H. C. Gieben Ambassador M. Ziauddin Ambassador Maurice Dejean Ambassador Shao Yu Lin	Thailand, Member, UNCORK Chile, Member, UNCORK Netherlands, Member, UNCORK Pakistan, Member, UNCORK French Representative with SCAP Nationalist Chinese Representative in Korea Netherlands Representative with SCAP
Ambassador P. E. Teppema	
Minister Shin, Sung M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Minister G. D. de la Chevalerie (Maj Gen)	Belgium Representative with SCAP
Minister K. K. Chettur Minister Sangs Milkemhang Vice Admiral Kiland Lt Gen J. B. Coulter Lt Gen Chung Il Kwon Honorable Maximino Ruano Honorable C. Stavropoulos Charge d'Affaires Henri Brionvel Charge d'Affaires Alex C.S. Adams Charge d'Affaires A. R. Menzies Doctor K. Idil Maj Gen Desrois Brig Gen P. F. Yount Colonel A. Brooks Lawhon Colonel G. McKee Colonel Ivan L. Bennett	India Representative with SCAP Thailand Representative with SCAP United States Naval Representative Deputy Commander, ZUSAK Chief of Staff, Korean Army Philippines, Member, UNCORK Greece, Principal Secretary, UNCORK French Representative in Korea United Kingdom Representative in Korea Canadian Representative with SCAP Turkey, Member, UNCORK Greek Armed Forces Commanding General, 2d Logistical Com'd Fifth Air Force Representative G-1 Section, GHQ, FEC United Nations Chaplain

<그림 7> 1951년 4월 6일 유엔묘지 헌정식 귀빈 명단⁵⁹⁾

59)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127.4. 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sic)=238", p. 238. 원문 제목은 "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6 APRIL 1951"이다 (대문자 및 밑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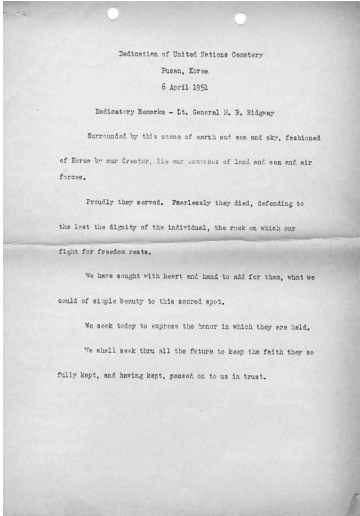
<그림 8> 헌정식 행사 식순(61) 및 한글 번역문(61)

본 헌정식은 <그림 8>과 같이 체계적인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엔참전국의 육해공군 장병들이 참가한 본 위령제는 이반 베네트(Ivan L. Bennett) 미군 수석군목의 주재로 집행되었다.⁶²⁾ NARA 사료에 공개

60)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127.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Records, 1951.04.06 = 233", p. 233. 원문 제목은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TANGGOK, KOREA 6 APRIL 1951"이다 (대문자 및 밑줄 표시).

61) 아카이브상에는 식순의 영문 자료만이 소장되어 있어, NARA, Ibid의 행사 식순을 필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편의상 범례로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62)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127.3.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유엔묘지 헌정식
대한민국 부산
1951년 4월 6일

헌정사- 매슈 벙커 리지웨이 중장

우리의 육해공군 전우들이 창조주의 수려한 솜씨로 만들어진 한국의 대지, 바다 그리고 하늘에 둘러싸인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전우들은 자랑스럽게 임무를 완수했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며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장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사한 전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들이 온전히 지켰고, 이어져 온 신념을 매 순간 계승하며 보전해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림 9> 리지웨이 중장의 헌정사⁶⁶⁾ 및 한글 번역문⁶⁷⁾

되어 있는 15개 유엔참전국 각국의 군목 및 기수, 보조기수, 화환담당자(wreath bearer)의 명단에서 주목할 사항은 이들의 역할 분장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 있었으며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각 참전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⁶³⁾ 그리하여 식순 중 “기도(CALL TO PRAYER)”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유엔군을 표상하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Records = 237”, p. 237에 베넷 목사의 추모 설교 전문이 공개되어 있다. 원문 제목은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THE CALL TO PRAYER”이다 (대문자 및 밑줄 표시).

63)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127.4. 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sic) = 238”의 후속 문서인 “Chaplains, Flag Bearers, Wreath Bearers DEDICATION CEREMONY, United Nations Cemetery”(원문 제목), p. 240에 15개 국별 담당인력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있는 점도 주목된다⁶⁴⁾.

이어서 리지웨이 중장의 헌정사 전문을 <그림 9>와 같이 제시한다. 본 헌정사에 관해서는 그간 “故人이 된 여러勇士들靈前に 길이冥福이 잇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墓地를 그靈前に 삼가 바치노라”고 언급한 정도로 알려져 왔으나⁶⁵⁾, <그림 9>의 헌정사 전문이 발견됨에 따라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헌정사 중 유엔묘지를 ‘신성한 장소(sacred spot)’로 표현한 부분은 오늘날 유엔기념공원을 성지로 명명하는 가장 이른 기원 중 하나임을 제시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또한 마지막 세 문장은 유엔묘지에 봉헌된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의식이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왔다(We have sought)”에서 “기리고자 한다(We seek today)”, 그리고 “전력을 다할 것(We shall seek)”으로 귀결되는 연결고리에서 전사자에 대한 기억과 경건함을 영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읽힌다. 아스만(1995)이 주장한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이 인간의 일생을 넘어 다음 세대에 전승되는 행위⁶⁶⁾임을 감안

64) NARA, Op. cit., 1951, “127.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Records, 1951. 04.06 = 233”, p. 233.

65)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51. Cook, Op. cit., 1953 및 Keene, Judith, “Bodily Matters Above and Below Ground: The Treatment of American Remains from the Korean War”, *The Public Historian* 32 (1), 2010, p.66에도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66)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390/8/05/06-07/E.2116K/ 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127.2. Dedication of United Nations Cemetery: Records = 236”, p. 236. 문서의 원제는 “Dedication of United Nations Cemetery (Pusan, Korea 6 April 1951) Dedicatory Remarks - Lt. General M. B. Ridgway.”

67) 아카이브상에는 리지웨이 중장의 영문 연설문만이 소장되어 있어, NARA, Ibid의 리지웨이 연설문을 필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편의상 별첨으로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68) Assmann, Ja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하면 이 헌정사는 “앞으로도 매 순간(thru all the future)” 유엔묘지 안장자들을 기념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억의 매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1951년 4월 6일의 헌정식이 당시 새로 조성된 유엔묘지라는 신성한 장소에 영면한 “육해공군 전우들”인 유엔 전몰장병들의 참전의 의미와 명예를 남겨진 자들에게 되새기게 한 기념비적 의의를 지니며, 오늘날 유엔기념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적 의례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리지웨이 중장의 헌정사와 함께 전반적인 헌정식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정식 사료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유엔군의 참전과 결속력을 구현한 주요 역사적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한반도에서 임시 유엔묘지가 집결되는 과정과 1951년 4월 유엔묘지 헌정식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70년 전 유엔묘지의 건립과 최초의 헌정식을 되짚어 보는 작업의 의의는 과거의 궤적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유엔묘지의 건립은 1951년 조성 이후 본 묘지에 영구적으로 안장된 각 참전국의 상황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가늠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엔묘지를 통해 이 장소에 표상된 유엔군 참전국들 및 그렇지 않은 참전국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의 현재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향성도 시사 한다.

유엔묘지는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층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면서 사회문화적 의미도 변천을 거듭하게 되었다. 1951년 유엔묘지의 건립은 그로부터 9년 후 유엔의 공식 기념묘지로 상징화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반세기 후 2001년 ‘유엔기념공원’이라는 국문 명칭 변경을 거쳐 2007년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359호로 거듭나는 전환기를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다.

IV. 나가며

오늘날 유엔기념공원의 전신이 되는 당곡리 유엔묘지는 한국전쟁에 파병되어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성지로 1951년 건립되었다. 본 묘지의 조성은 전투 정세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걸친 임시 유엔묘지의 형성 및 통합, 소멸의 전사(前史)와 긴밀히 연동되었다. 1950년 7월 최초로 대구에 설립된 임시 유엔묘지 이후 이듬해 4월 당곡리 유엔묘지에 이르는 경위는 유엔군이 한반도에 새긴 전투의 발자취이자 주둔을 입증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한반도 각지에서는 임시 유엔묘지의 설립과 후퇴, 이에 따른 전사자 유해의 통합과 발굴, 이송, 재안장 등이 반복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엔군 전사자 유해가 안장된 오늘날의 유엔기념공원은 이 같은 전쟁 중 유엔군들의 지난한 이동 과정이 함도 부산에 남긴 흔적이자 지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1년 4월 6일에 개최된 헌정식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국적 유엔군 전사자들의 명실상부한 추모공간인 유엔묘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비적 의식이었다. 본 행사는 외교안보 국방계의 유엔참전국 귀빈들이 국내 및 일본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유엔기 계양과 헌화, 종교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종교 의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헌정식은 당시 치열한 전황 가운데에서도 체계적인 식순을 갖추어 타국의 전사자들에 예우를 다하고자 한 국제규모의 공적 의례였다.

본문에서 제시한 헌정식의 전사자 기념과 관련한 각종 사료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 유엔참전국 간의 공동 의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역사적 물증이다. 이와 더불어 리지웨이 중장의 헌정사 기록도 전사자들이 한국전쟁에서 못다 이룬 뜻을 남겨진 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해 나가고자 한 헌신을 담은 문화적 기억의 매체라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유엔묘지의 창설을 둘러싼 주요 전투의 변화나 성격, 영향 등에 대한 포괄적 맥락에 대한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하겠다. 또한 유엔묘지조성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미 군사정책과 그 외 참전국들의 관여 사항, 기여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점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심층적인 사료 발굴과 고찰을 통해 향후 유엔묘지의 건립과 그 의의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고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

반면에 본고에서는 1951년 4월 6일 헌정식 사료와 관련한 다방면의 아카이브 교차 분석을 통해 유엔묘지에서 개최된 기념 양상과 당시 묘지의 정황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2건의 영상은 기존의 사진 및 신문자료로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1950년대 유엔묘지의 역사적 사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으며 연구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일조하리라고 판단된다. 이는 ‘피란수도 부산유산’ 사업의 시대적 배경 과도 정확히 부합하므로, 세계유산 등재에 필수불가결한 유엔묘지의 국제협력을 제시하는 증거물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유엔기념공원의 원점인 유엔묘지의 탄생 경위를 통해 그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한국전쟁사의 주요 일단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가 유엔묘지 건립 7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오늘날, 한국전쟁이라는 국제 규모의 군사사와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리고 항도부산의 지역사가 중첩되는 교차로를 재점검하고 향후 한반도와 참전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NARA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 Series), 소장원본청구기호: 390/8/05/06-07/E.2116K/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50, “8.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Quartermaster review, March-April, 1953):잡지/John C. Cook, QMC, 1953 = 95”, “12. Historical report - Headquarters,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8204th Army Unit APO 3 = 122.”

_____,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Record Group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 Series), 소장원본청구기호: 390/8/05/06-07/E.2116K/Box3,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1947, “82.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비망록/MacArthur, Command of General 발산;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수신, 1951.01.08 = 126”, “127.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Records, 1951.04.06 = 233”, “127.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Records, 1951.04.06 = 234”, “127.2. Dedication of United Nations Cemetery: Records = 236”, “127.3.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Records = 237”, “127.4. 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sic) = 238”, “127.4. 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sic) = 238(“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 6 APRIL 1951”)”, “127.4. VIP guest list, dedication, United Nations Cemetery(sic) = 238(“Chaplains, Flag Bearers, Wreath Bearers DEDICATION CEREMONY, United Nations Cemetery”).”

_____, (복제: 전자자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950~1952, RG 306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Record Group)(PS ; Series), Box129, Cemeteries - Korea, United Nations /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Taegu, Korea. Two men replacing plain headboards with crosses on graves in the left cavalry division temporary cemetery 1950.08.25 = 1.”

2. 저서 및 논문

- 강인철, 『전쟁과 희생: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 국가보훈처(차성환), 『참전기념 조형물 도감』 국가보훈처, 1996.
- 김선미, 『재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0, 2020.
- _____,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 『軍史』 119, 2021.
- 전재일, 『헤이든 화이트의 서사적 관점으로 본 부산근대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고찰-부산항 제 1부두와 재한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정기욱, 『6.25전쟁 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재 가능성 분석-남한지역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조성훈, 『정전협정 직후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 (1), 2020.
- Appleman, Roy,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June-November 1950)*,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 Assmann, Ja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 Congram, Derek, “Grave Influence: The Impact of Britain and the U.S. on Canada’s War Dead Policy”, *Journal of War & Culture Studies* 10 (4), 2017.
- Keene, Judith, “Bodily Matters Above and Below Ground: The Treatment of American Remains from the Korean War”, *The Public Historian* 32 (1),

2010.

Lee, Chungsun, “Other Spaces: Exploring Kyushu as ‘Heterotopia for Humanity’ in Japan’s Korean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10 (4), 2020(b).

Lee, Sangho, “The Domestic Management and Media Coverage of Falle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1950 - 1953”, *Korea Journal* 60 (2), 2020.

Simmons, Edwin, *Frozen Chosin: U.S. Marines At The Changjin Reservoir* (Marines In The Korean War Commemorative Series Book 7), New York: Normanby Press, 2015.

Westover, John G., *Combat Support in Korea* (U.S. Army in Action Series),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3. 신문기사

『동아일보』, 1951.4.8. 2면. ‘世界平和의 守護神 英靈에 길이 冥福 잇스라.’

『중앙일보』, 2021.6.25. 18면. ‘6·25 참전 21개국 전사자중 11개국 2311명 유해 영면.’

『Never Forget You All』(부산광역시 남구청 특별호), 2018.11.11. 17면. ‘한국에 소년으로 왔다가 사나이가 되어 돌아갔다.’

4. 인터넷 자료

Anders, S. E., “With All Due Honors: A History of the Quartermaster Graves Registration Mission”, *Quartermaster Professional Bulletin*, 1988, <https://www.qmfound.com/article/with-all-due-honors-a-history-of-the-quartermaster-graves-registration-mission> (검색일 : 2019.6.19.).

Australian Dictionary of Biography, 2006-2021, “Hodgson, William Roy (1892 - 1958)”, <https://adb.anu.edu.au/biography/hodgson-william-roy-6695> (검색일: 2021. 7. 17).

Cook, John C.,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 *The Quartermaster Review*, VA: Army Quartermaster Museum. 1953, https://qmmuseum.lee.army.mil/korea/gr_korea.htm (검색일: 2021.7.21.).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Photographic Center

(09/18/1947 - ?) 1951.04 ~ 1951.04, Folder H, 소장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처: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사료건 AUS060_01_00V0004_515, “Flags of Many Nation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서 나부끼는 각 UN 회원국들의 깃발]”, 문서번호 467868),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7. 22).

,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Photographic Center (09/18/1947-?) 1951.04~1951.04, Folder H, 소장처: NARA, (출처: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60_01_00V0004_517, “Entering the UN Cemetery [부산의 UN묘지 헌정식에 참석한 한미 수뇌부들]”, 문서번호 467870)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7. 22).

Lee, Chungsun, “‘Moment to be one’: Senses of Place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 Dominique Vanneste & Wesley Gruijthuijsen (eds.), Value of heritage for tourism (Proceedings of the 6th UNESCO UNITWIN Conference 2019), Leuven: University of Leuven, July, 2020(a), <https://ees.kuleuven.be/unitwin2019/proceedings/> (검색일: 2021.5. 10.).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RG25: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Fonds (R219-0-2-E), ACA001_01_01C0037, [U.N. Cemetery in Korea, Part 2, 1955/08/01-1965/03/31 (File 7-3-3-5)], Box 10, “Letter dated 30th November, 1950(From A. Gascoigne to HCH Robertson)”, “Dedication of United Nations Cemetery in Korea”, (From: The Head of the Canadian Liaison Mission, Tokyo,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CANADA, Date: April 7, 1951, Despatch: No. 334), (원본 소장: LAC,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7. 19.)

MyFootage.com, “1951 U.N. Korean War Memorial Ceremony in Pusan (Silent) (Outtakes)”, https://www.youtube.com/watch?v=6_mIeKAgTs8 (검색일: 2021.4.4.).

NARA, RG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 1985, Cpl. Gene La Grone (1951.06.17, SC 370707), “Aerial view of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공중에서 본 유엔묘지]," 사료건 (AUS005_06_04V00 00_231), (원본 소장: NARA,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일: 2021. 5. 3.).

PeriscopeFilm, "1951 KOREAN WAR HOME MOVIE PUSAN WEST AIR BASE BURIAL DETAIL MARINE CORPS (SILENT) 24114", <https://www.youtube.com/watch?v=U3NAhwmp-0I&t=841s> (검색일: 2021.8.8.).

Reuters Limited & British Pathé, "General Ridgway Attends Dedication Of Un Cemetery. 1951" (GROUP: Reuters - Including Visnews, FILM ID:VLVA6WRNKUNMFY8CQ427C19PCBRKG), <https://www.britishpathe.com/video/VLVA6WRNKUNMFY8CQ427C19PCBRKG-GENERAL-RIDGWAY-ATTENDS-DEDICATION-OF-UN-CEMETERY/query/cemetery> (검색일: 2021.4.4.).

투 고 일 : 2021. 05. 24.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 확정일 : 2021. 07. 07.
--

| Abstract |

Dedication Ceremony of the UN Cemetery During the Korean War, 1951 - A Study on the Integration Process from Temporary UN Cemeteries 1950~1951 to the Dedication -

Lee, Chung-Sun

2021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the official cemetery of UN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these monumental events intersect, it would be timely to re-examine the status of the UNMCK and reflect on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place.

This research explores the integration progress of temporary UN graveyards scat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July 1950 to the completion of the Tanggok UN Cemetery in April 1951. I attempted to examine the aspect of the dedication ceremony of the UN Cemetery held on April 6, 1951, which has not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Notably, this study looks into unreleased historical documents and video materials conducted through multi-archival surveys.

The study thus seeks to fill the research gap of the UN graveyards in the 1950s and expand the scope of academic discourse. Considering that the UN Memorial Cemetery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War-time Capital Busan Heritage” in Busan in preparation for the UNESCO’s World Heritage listing in the 2030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ital for World Heritage listing. This research will also play a consolidating role for the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 allied nations in

2021,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onstruction of the UN Cemetery.

Key Words : The Korean War, UN Allied Nations,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War-time Capital Busan Heritage”, General Matthew Ridgway